

# JTC (950170)

기업 탐방노트 | 미디어/엔터/통신

## NR

목표주가	NR
현재주가	6,500 원
시가총액	2,275 억원
KOSDAQ(08/02)	615.70 pt

## Just Too Cheap

Analyst 김현용 \_ 02 3779 8955 \_ hyunyong.kim@ebestsec.co.kr

### 컨센서스 대비

상회	부합	하회
	●	

### Stock Data

90 일 일평균거래대금	11.7 억원
외국인 지분율	9.6%
절대수익률 (YTD)	-3.4%
상대수익률(YTD)	5.5%
배당수익률(19E)	0.0%

### 재무데이터 (IFRS 연결기준)

(십억원)	2016	2017	2018	2019E
매출액	533.1	532.5	518.9	650.0
영업이익	32.5	31.0	22.9	29.0
순이익	14.9	24.6	8.0	19.0
ROE (%)	12.4	18.5	5.5	8.1
PER (x)	n/a	n/a	28.8	11.9
PBR (x)	n/a	n/a	1.3	1.0

자료: JTC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\* 2019년은 컨센서스 반영

### Stock Price



### 매출비중 80%가 방일중국인: 6월에도 YoY +16% 증가

- FY1Q19(2019.03.01~05.31) 매출액은 165.7억엔(YoY +25.2%), OP는 12.3억엔(YoY +47.6%)이었는데 이 중 80%가 방일중국인 매출. 동기간 방일중국인은 217.4만명으로 YoY +11.7% 증가하여, 방일한국인이 175.6만명으로 YoY -7.5% 감소한 것에 실적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것으로 판단
- FY2Q19(2019.06.01~08.31)의 시작인 6월도 방일중국인은 88만명으로 YoY +15.7%로 전분기비 고성장 중이고, 방일한국인도 61만명으로 YoY +0.9%의 기저효과를 누린 것으로 판단

### 7월말 방일중국인 비자완화 효과 > 7월 방일한국인 감소 효과

- 일본 불매운동이 심화된 7월부터 방일한국인 감소 우려는 명약관화할 것으로 판단. 그러나 매출비중(방일중국인 80%, 방일한국인 15%)에서 보듯 동사 실적 방향성은 방일중국인수가 결정함
-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정부는 방일한국인 감소를 우려하여, 7월 29일 외무성을 통해 방일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(비자신청 전자화 & 향후 전자비자 발급)를 발표하고 30일부터 단계적 시행
- 주된 내용은 기간 내 1회만 방문가능한 15일 이내 체류의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, 일본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. 내년 4월부터는 방일중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비자 발급을 도입할 계획

### 방일중국인 수요 자극 효과로 2Q도 실적호조 예상

- FY2Q19(2019.06.01~08.31) 실적은 6월이 중국 호조 & 한국 양호의 분위기에서 시작하여, 7~8월 방일중국인수의 점증이 예상되는 상황
- 상반기 방일중국인 고성장과 하반기 증설(일본내 면세점수 24개 → FY19년말 30개) 감안시, FY2019 OP 가이드스 27억엔을 크게 상회한 연간 OP 35억엔이 가능할 전망. 유효세율 30%를 감안해도 한화로 220~240억원의 순이익 가능
- 현시총은 PER 10배 수준 불과해 방일중국인 구조적 성장성 감안시, 여행관련주 중 일본 불매운동 영향은 제한적인 데다 밸류메리트까지 큰 것으로 판단

JTC 목표주가 추이	투자 의견 변동내역											
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과리율(%)		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과리율(%)		
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
	2019.08.02	변경	김현웅									
	2019.08.02	NR	NR									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김현웅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**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**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 의견 비율	비고
<b>Sector</b>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<b>Company</b>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<b>합계</b>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3.9% 6.1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		<b>100.0%</b>	투자 의견 비율은 2018. 7. 1 ~ 2019. 06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